

# 나의 發明

## 基 科學 공부



〈申錫均 회장〉  
 ● 발명가  
 ● 국제발명전 44회 수상  
 ● 국내장관상 이상 수상 25회  
 ● 동탑산업훈장 수상

本會가 지난 82년 발명진흥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재출범한 후 우리나라의 발명인이 부쩍 늘고 있다.

本會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등 각종 발명진흥사업이 이제 하나 둘씩 결실을 맺어 「발명은 반드시 많은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발명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으며, 우리 일

▲ 회장님께서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발명왕으로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발명가는 발명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 한국신발명연구소 소장, 한국발명학회 회장, 국제발명메달리스트회 명예회장, 한국발명특허협회 비상근 부회장등등으로 미려하나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학박사 학위도 받게 되었습니다.

▲ 회장님의 첫발명과 이력을 소개해 주십시오.

◎ 저는 1929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집안

이 부유했던 편이라 일곱살 때 구세군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하루는 비가 왔는데 유치원에 갈때 타고 다니는 세발자전거가 바에 젖을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안 젖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생각끝에 셀루로이드 종이로 자동차 외관마냥 세발자전거 외관을 씌웠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첫 발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발명에 관해서는 어릴적부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도 공과 전기과를 들어갔습니다.

17세 때에는 해주사범학교 특강과정을 수료하고 최연소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종이접기에 취미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후일 세계최초의 발명으로 현재 세계 2백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트팩(종이음료용기)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훌륭한 발명을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려 했는데 그만 6·25가 터졌습니다.

당시 서울대 공대에 가려 했는데 배울게 없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중이라 실험도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결국 전시연합대학의 중앙대 법문학부에 들어가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시절 학생신분으로 「가정교육」이라는 교육잡지를 5년동

# 나의 發明技法

## 하고 特許公報 많이 봐야

「상생활 주변의 간단한 착상에서 비롯된다」는 실로 바람직한 발명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배출되는 발명인들이 초·중학생으로부터 가정주부 및 생산현장의 기능공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함이 입증해주고 있다.

이같은 발명붐을 타고 최근 언론사들은 발명인의 사례를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안 퍼내기도 했습니다. 꽤 인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시연합대학도 해체되었습니다.

이때 외국에 나가 뭔가를 배울 요량으로 동국대 농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워했던 환경인지라 꿈은 무산되었습니다. 어차피 외국에 못나갈 바에 외국어라도 배워 놓아야지 하는 생각에 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에 들어가 제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어과에 들어간 이유는 당시의 세계가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례 소개에 그쳐 버려 발명인들의 발상기법을 알고자 하는 발명인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이에 本誌는 발명인(과학자 포함)들을 찾아 그들의 사례와 함께 발명발상기법을 들어보기 위해 이欄을 마련하고, 그 첫회로 한국발명학회 申錫均회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이 밖에 연세대 산업대학원, 서울신문학원, 서울대최고경영자과정, 미국 유이언대학 명예 과학박사 학위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회장님은 국제발명제에서 세계 제1의 발명가인 日本의 中松義郎박사 다음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건이나 발명하셨으며, 국내의 수상은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 세계 제1의 발명가 中松義郎박사와 버금가는 발명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명없이는 못삽니다. 발명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수단이 동시에 목표입니다.

니다. 이게 제 발명수첩입니다(申회장은 20여권의 발명수첩을 보여 주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그러니까 제나이 서른살때부터 발명수첩에 발명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발명은 1천7백여건에 이르며, 이중 출원한 것은 1천여건입니다.

수상실적은 국제발명전 수상 44회, 국내 장관상 이상 수상 25회, 동탑산업훈장 수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86년 제네바국제발명전에서 국제발명전 사상 처음으로 6관왕이 되어 중국발명가협회에서 주는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 30년 동안에 1천7백건을 발명했다면 1주일에 1건을 발명한 셈이군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1일 1건 발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었달까요.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생애 통산 목표인 1만건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의 1천7백여건 발명중 10가지만 꼽는다면?

◎ 6·25때 발명하여 10만개 이상 판 도량형환산기, 세계 2백여국에서 사랑받는 카튼팩,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양열 이용 라디오 모자, 전국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임신 조절 컴퓨터, 삼성전자에 시집보낸 수면학습기, 중견기업을 탄생시킨 끝없이 돌아가는 테이프, 바이오리듬 컴퓨터, 입체투시기, 위조지폐감식기, 카

메라 입체촬영렌즈, 전화청진기, 접는 낚시용 의자 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 회장님의 발명발상기법은 무엇이기에 그처럼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까?

◎ 발명에는 기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책에 발명기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명은 폭넓고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관심만 있다고, 기계를 좀 안다고, 전자·전기를 좀 안다고 발명가가 되는건 아닙니다.

발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각계 분야에 걸쳐 이뤄지므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을 잘 익혀야 좋은 발명을 할 수 있고, 또 발명에 가속도도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분야에 걸쳐 공부한데도 있지만 기초과학을 평생동안 공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기초과학을 비롯한 각종 과학·발명관계서적을 모두 구입하여 꾸준히 탐독하고 있습니다. (申회장의 방에는 각종 과학·발명관계 서적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덕분에 동아출판사 발간 백과사전의 발명특허분야를 집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발명수첩과 일기 덕분입니다. 저는 30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발명수첩

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아이디어는 사무실(또는 집)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구체화됩니다. 이때 저는 백과사전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30년동안 써온 일기도 발명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王기자께서 직접 봐 알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특허청에서 발간된 공보를 1호부터 최근호까지 모두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6·25때 피난시절에도 공보를 가장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공보를 보지 않고는 좋은 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발명인들의 발명이 대부분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는 것은 공보에 기록된 선행기술조차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보의 중요성은 이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 저는 국제발명전도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국내 전시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람합니다. 각종 발명·과학·기술관계 전시장 관람은 발명가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루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경우는 새벽·오전·오후·밤 등 4등분으로 분류하여 철저한 계획에 따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가지가 더 있으나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소질이 있으니 스스로 터득하고 개발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 회장님께서서는 발명가라는 용어를 즐겨 쓰시는데 발명가와 발명인 그리고 발명자는 서로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 분명히 다르지요. 발명가는 훌륭한 발명을 하여 자기 아닌 남들이 붙여준 명칭이고, 발명인은 발명을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발명자는 명칭어로서 그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요.

◎ 회장님께서서는 ‘성공한 발명’이란 어떤 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함께 회장님의 발명관을 들려 주십시오.

◎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돈을 벌어야 성공한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을 벌면 더욱 좋겠지만 발명의 성공은 바로 그 발명 자체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 출원을 거쳐 등록을 받은 발명만이 성공한 발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의 선발명제도는 실로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발명이란 선행기술이 없는 신기술로서 산업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특허란 이것을 특허법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발명은 발명 그 자체가 성공이며, 돈을 번다든가 특허를 받는다든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명관은 또 발명가는 오직 발명에 전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발명은 미래학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건 모든

사람의 꿈이겠죠. 문제는 어떻게 이 꿈을 실현하느냐에 달린 것 아닙니까. 인간은 결코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발명과 함께 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명이 저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 회장님은 주로 어느때 어느 곳에서 발명을 하십니까?

◎ 저는 연구실이 따로 없습니다. 저의 사무실에만도 6개의 방이 있는데 모두가 연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의 머릿도 연구실이고, 생활하는 공간이 모두가 연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어 연구실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연구시간 또한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생활속의 시간 모두가 연구시간입니다.

바로 왕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장소와 시간도 연구실이고 연구시간입니다. 저는 발명이 생활이고 인생이고 취미이고 철학입니다.

주관왕들이 주관대회에서 주관은 형식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는 머릿속의 주관을 이용하여 암산을 하는 것이 어쩌면 저의 발명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후배 발명가와 발명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성공한 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초과학을 공부하고, 특허공보를 많이 보고, 전시회를 많이 구경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즉석에서 더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기록하고, 선견력을 가지고 시장성도 조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또 노력중에서 가장 중요시할 것은 평생공부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발명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 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1만건 발명에, 국제발명전 1백회 수상, 그리고 발명대학 설립 또는 전문대와 대학에 발명 및 공업소유권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발명전 1백회를 돌파하면 수상발명품을 모아 세계일주 개인발명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수집안이니 저의 노력여하에 따라 저도 장수할 수 있다고 믿고 술·담배도 끊었습니다.

이와 함께 나름대로 개발한 10가지 정도의 장수비법을 어김없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1백세까지 장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 회장님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

한 재산이기도 한 「正心」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 발명계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아직도 발명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가슴이 아픕니다. 발명가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풍토조성이 아쉽다고나 할까요.

저 자신도 발명가이지만,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각종 직책을 가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지요. 그것만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어렸을 때 개구장으로 통했습니다. 수박과 오이를 접붙이기도 하고, 썰매에 방향타를 달아 동네 어린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시계, 고장난 라디오 수리도 도맡아 했으나 망가뜨리는 법이 없어 동네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어린시대에 게는 인생을 사는 가치관을 바로 심어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머릿 아닙니까.

저는 발명계의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王>